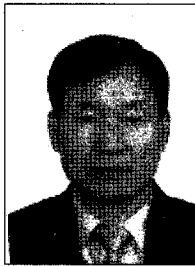


목장 입지난 해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한 정책적 고찰

- 낙농단지와 낙농육성우 전문목장을 중심으로 -



이 성 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1. 검토배경

국내 낙농산업의 현황을 보면 낙농가수와 젖소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총 原乳생산량 역시 감소하는 추세다. 낙농가의 경우 2000년에 1만3천3백호 이던 것이 10년만에 절반수준인 6천5백호로 감소하였고, 젖소는 2000년에 54만 4천두이던 것이 2010년 9월 현재 42만 9천마리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 원유생산량 역시 2002년에 253만 7천톤을 피크로 2009년에는 211만톤으로 감소하였으며, 금년에도 전년 대비 2~3%의 감소가 예상된다.

낙농현황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농가호수(호)	23,519	13,348	8,923	6,767
사육두수(천두)	554	544	479	445
호당 사육두수(두)	24	41	54	66
국내생산량(천톤)	1,998	2,253	2,229	2,110
수입량(천톤)	146	559	850	1,000
총소비량(천톤)	2,144	2,812	3,079	3,110

이러한 감소추세는 원유의 수급균형을 위해 그동안 과도한 잉여원유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온데 기인한 바가 크지만 낙농가의 세대교체가 원활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2009년에 자체 조사한 목장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낙농후계자를 확보하고 있는 낙농가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업은 연중 무휴로 목장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안정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투자자본도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이 타결되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성향상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대내적으로 소비자의 높은 눈높이에 맞춰 고품질의 원유를 안전하게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낙농업으로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아 보이며 기존의 낙농가가 규모를 늘려나간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한우, 돼지 등을 사육하는 농가의 소득이 상승하다 보니 동 축종으로 전업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낙농진흥회 농가의 경우 2009년 한 해동안 한우·육우 등 다른 축종으로 전업한 농가가 61농가나 된다.

한편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강해져 축산업은 환경적인 제약을 크게 받는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도시의 팽창으로 축사이전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경우 360호 정도가 목장이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앞으로 목장이전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낙농산업의 기반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와 함께 낙농후계인력을 양성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도시화에 따른 목장이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낙농단지는 규모화된 낙농가를 집단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농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비용절감대책을 2010년도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비용절감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품목별로 비용절감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낙농분야도 생산자와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들로 낙농비용절감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① 사료비 절감, ② 젖소개량, ③ 낙농단지 조성, ④ 젖소육성우전문목장 운영, ⑤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⑥ 우수농가 선발 및 아이디어 수집전파 등을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낙농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과 연계하여 목장 이전수요를 고려한 낙농단지 조성, 목장별 착유두수 확대를 위한 젖소육성우 전문목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낙농단지 조성방안

영세규모의 낙농목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생산비 증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축산 입지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축사방역이 가능하고, 조사료 공급기반을 갖춘 낙농지구 조성이 필요하다. 낙농단지는 산업화, 도시화로 밀려나는 목장들의 이전수요를 수용함과 동시에 관련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즉 규모화된 목장을 집단화하여 조사료포 등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는 선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우수군 능력검정,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 등을 위한 젖소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낙농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낙농단지에 입주할 농가의 수요와 함께 적절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낙농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낙농단지의 적절한 조성규모 및 사육규모, 소요예산, 최적부지 선정, 기반시설 확충, 농가경영 수익성 예측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낙농자조금을 재원으로 낙농단지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를 금년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최적의 낙농단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연구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낙농단지의 전체적인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 경영효율 및 원가절감을 위한 이상적인 낙농단지 구성요소 및 요소별 규모를 파악하여 낙농단지의 전체적인 규모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한 소요 예산을 파악해야 한다. 낙농단지에 입주할 농가별 사육규모와 적절한 낙농가 수를 정하여 이를 토대로 축사 시설 기본설계와 함께, 공동운영시설 배치 및 운영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낙농단지에 필요한 공동운영시설로는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조사료포 및 TMR공장, 육성우 전문목장, 축산기자재 및 관련시설 등을 들 수 있으며,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성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SWOT 분석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수익성 산출을 위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낙농단지 조성사례를 조사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낙농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부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조성에 필요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유희지, 간척지 등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낙농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낙농단지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주체를 선정하고 부지선정, 시설운영, 자금투자 등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여 정부,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정부가 주도한 비용절감TF 팀에서는 낙농단지의 규모를 농가수 30호, 사육두수 3,600두 정도를 가정하였는데 이는 농가당 사육두수 120두 정도의 전업농들이 공동체활동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되, 질병발생에 따른 위험도(RISK) 등을 고려한 것이다. 낙농단지의 규모가 너무 적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높지만 반대로 규모가 너무 클 경우 질병발생에 따른 위험도가 너무 크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간척지를 제외하고는 거대한 낙농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경우 낙농단지의 소요면적은 '농식품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118,648㎡(축사시설 1,408㎡, 조사료포 117,240㎡) 정도이다.

향후 낙농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하에 낙농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3.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일괄사육형태로 착유우와 육성우를 모두 사육함에 따라 사료비 등 생산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체 사육두수 대비 후보우(송아지, 육성우 등) 사육비율이 '09년 44.4%로 나타났는데 후보우 사육비율이 높을수록 사양비용이 증가하고 밀집사육에 따라 사양환경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행 쿼터제에 의해 생산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후보축의 보유는 불필요한 경산우 도태를 야기하여 생산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일본의 육성우 전문목장 운영사례〉

◆ 가나가와현 오노산 젖소 육성목장

- 연혁 : 1968년 개장, 최초 생후 약 6개월의 젖소 암송아지 입식 후 '02~'06년에는 교류시설 등으로써 목장관, 산책길, 육성우사 등을 설치
- 면적 : 93.96ha, 초지 : 66.76ha(채초지 8.22, 방목지 58.54), 그 외 임지 및 시설용지 등 : 27.2ha
- 육성 : 낙농가로부터 매년 봄에 약 6개월령의 암송아지를 입식해 방목시킨 후 다음 해 봄부터 가을에 걸쳐 임신이 확인된 소를 낙농가에게 분양

◆ 치바시 젖소 육성목장

- 치바시의 낙농진흥을 위해 기초우가 되는데 필요한 젖소 목장
- 육성우는 생후 120일을 경과한 송아지로 일본 '홀스타인 발육 표준'에 따라 젖소로서의 특징을 갖춘 뛰어난 체질의 소
- 과거 젖소 법정 전염병, 그 외 악성 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우사로부터 생산된 젖소 입식
- 육성 위탁료(18개월 이내) : 입식시 70,000엔, 15개월령시 80,000엔, 출하시 90,000엔

뿐만 아니라, 목장이 규모화 됨에 따라 후보우 사육두수가 많을수록 축사면적, 분뇨처리 등 시설면적이 늘어나 목장부지가 부족하게 되고 이는 축사 이전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보우 비율을 낮추어 총 사료비 투입비용을 절감하고 육성우 전문사육 목장을 조성하여 규모화와 함께 전문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등 낙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육성우전문목장이 활성화될 경우 낙농가는 착유소만 보유하고, 우유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농가내 잉여 암송아지는 전문 비육목장에서 육우로 활용하고 우수 암송아지는 다시 생산목장으로 환원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목장의 규모가 착유소 위주로 확대될 수 있다면 규모화에 따른 목장부지 부족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낙농단지에 육성우전문목장이 도입될 경우 낙농단지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육성우 전문목장은 과거에 일부 낙농조합에서 실시하여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오히려 이를 거울삼아 실패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비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100여개의 육성우 전문목장이 운용되고 있으며, 지난

2010.9.1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개최한 ‘낙농분야 비용절감 심포지움’을 통해서도 그 타당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육성우 전문목장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금년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암송아지 선별 서비스 및 사양관리프로그램 개발·실증실험 등을 우선 추진하여 사업 성공여건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다.

육성우 전문목장은 대규모 조사료 생산기지 및 TMR사료공장 운영이 가능한 조합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선도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양시스템을 적극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범 사업을 통해 사양관리 및 경영개선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마치면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목장이전의 문제는 주로 수도권에 근거지를 둔 낙농가들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친화적인 축산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있는 낙농가 여러분들도 이러한 친환경적 축산경영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땅값이 비싼 우리나라의 경우 드넓은 초지에 젖소를 방목하기는 어렵지만, 집단화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목장이전 문제도 해결함과 동시에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낙농단지 조성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역시 축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비 절감은 물론 부족한 목장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 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그룹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낙농단지와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준비 속에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